

Jeonbuk Institute 20160706 vol.151

ISSUE BRIEFING

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방안

이중섭_ 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부)
김형오_ 연구위원(문화관광연구부)
오병록_ 부연구위원(도시공간교통연구부)
조경욱_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소)
황영모_ 연구위원(농업농촌식품연구부)

C O N T E N T S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16년 07월 06일 vol.151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방안

1. 1인 가구의 부상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04
2. 전라북도 1인 가구 현황과 특성 05
3. 전라북도 1인 가구증가 대응 방향 및 분야별 대책 11

| 요약 |

1. 1인 가구의 부상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 [경제 : 솔로 이코노미의 등장]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27%를 차지하면서 경제 및 소비활동의 주체로 1인 가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의 등장
 - ※ 식품, 주택, 가전 등 관련 산업에서 1인 가구 대상 제품의 집중적 개발 및 출시
- [사회 : 사회안전 욕구 증가] 1인 가구의 고립된 환경에 노출된 여성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정책요구 증가
 - ※ 여성 싱글족의 증가는 보안과 안전을 모두 겸비한 주거환경 선호
- [문화 : 혼족 문화의 출현] 문화향유의 방식을 개인화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취미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라운징(Lounging) 문화의 출현
 - ※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80.5%로 전체 가구 소비성향 73.6%를 초월, 1인 가구는 식료품을 포함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높은 투자

2. 전라북도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 [지속적 증가]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2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44%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3.55%, 2030년에는 37.7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전국 평균인 27.05%보다도 약 3%p높고 2030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4%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
- [노인, 여성 1인 가구 증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0.9%를 차지하고 있고, 성비로는 여성 1인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72.3%차지
 - ※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40.8%수준이지만 2020년 41.83%로 급증하고 2030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차이] 전라북도 1인 가구는 연령별로는 노인, 지역별로는 농촌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 1인 가구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대책 필요
 -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청년 1인 가구의 일자리 그리고 장년 1인 가구의 여가문화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초점화 필요

3. 전라북도 1인 가구 증가 대응 방향

- [세대별 정책 차별화] 전라북도의 1인 가구 분야별 대책은 노인 1인 가구의 주거와 돌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고용지원, 그리고 장년 1인 가구의 여가문화 중심으로 사업의 전환 필요
 - ※ 노인 1인 가구는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중심의 대안 마련, 장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활용한 1인 가구 맞춤형 여가 문화산업으로의 전환과 소형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성비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는 위험사회에 대응한 지역안전체계 구축과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정책대안 강구 필요
- [지역안전시스템 구축 및 안심돌봄 강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1인 가구와 사회안전과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싱글족 여성 1인 가구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심돌봄정책 강화
 - ※ 청년 1인 가구 건강검진비 및 식사쿠폰 지원, 여성안전마을 지정 관리, 방문형 안심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1인 가구 유희공간 활용 시니어-주니어 흡쉬어링 조성
- [공간공유형 쉐어하우스 확대] 젊은층의 주거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청년임대주택 공급 및 대규모의 독자적 주거보다는 공동공간은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공급
 - ※ 전복형 리모델링 사회주택 쉐어하우스 공급(침실은 독립공간, 거실 및 부엌 등은 공동공간으로 설계), 청년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빈집활용 1인 가구 공동체 및 동호회주택(창업과 주거 결합) 조성
- [혼족대응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1인 가구의 여행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북 문화관광인프라 개선 및 토탈관광 연계 1인 여행객 지원 강화
 - ※ 1인 여행객 적합 전북 문화관광 정보 제공(1인 가구 적합 여행코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여행어플제작을 통한 정보제공), 1인 여행객 타킷 맞춤형 문화관광 패키지 및 럭셔리 관광상품 개발

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방안

03

1. 1인가구의 부상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1) [경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의 등장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의 등장함에 따라 경제 및 소비활동의 주체로서 1인 가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는 싱글(singles) 및 1인 가구가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자 식품, 주택, 소형가전 등 관련 산업에서 이들 대상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출시하는 것을 의미(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5)
- 1인 가구의 소득은 2인 가구보다는 적지만 연간 소비지출액은 2인 가구를 초월, 2011년 기준 1인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약 50조원(전체 가구 소비지출액의 12%) 추정
 - 1인 가구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외로움, 불안감 등과 관련된 욕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
 - 한국보다 가구구조의 변화를 앞서 경험한 일본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비확대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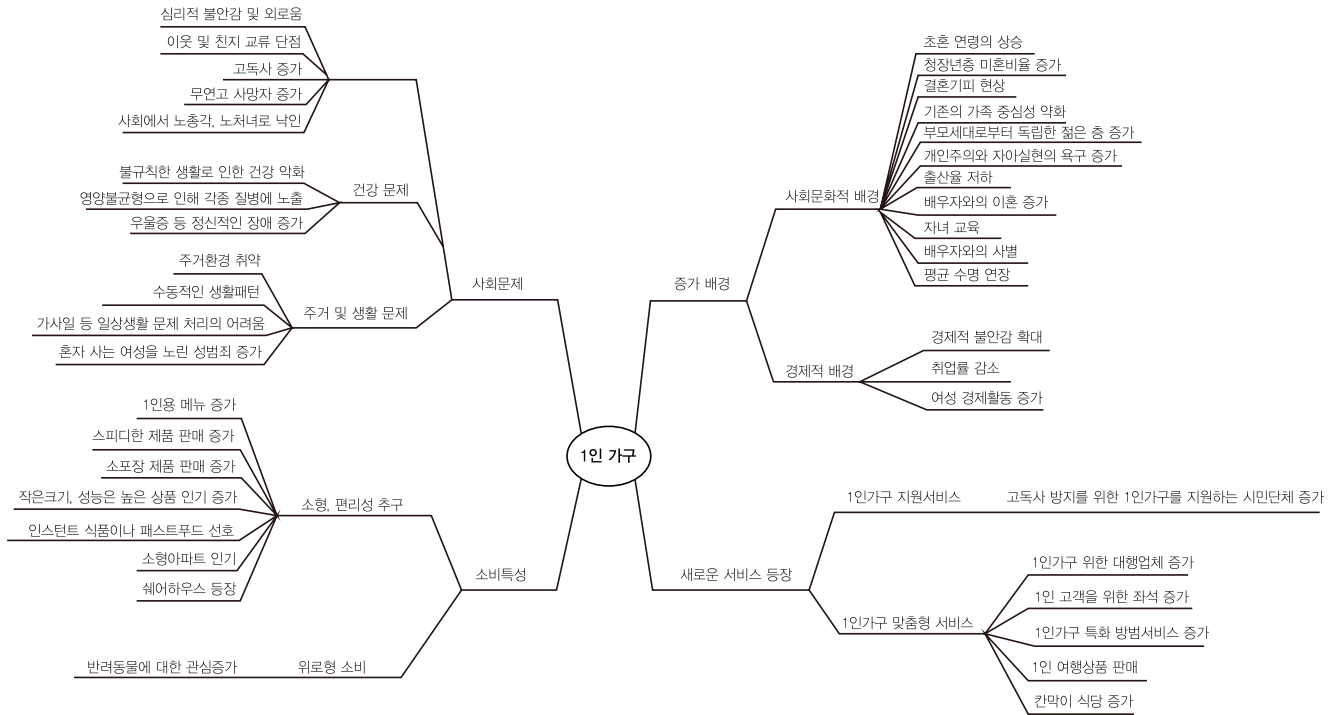
2) [사회]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사회에 대한 욕구 증가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립된 환경에 노출된 여성과 독거노인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뤄질 경우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 1인 가구의 우울지수는 11.2점(60점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 5.9점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삶의 만족도도 3.31점(5점 기준)으로 비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3.50점보다도 낮음
 - 개인주의의 확대와 부양역 약화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가족부양은 사실상 불가능, 사회적 부양시스템 구축을 통한 잠재적 사회비용 절감 필요
- 여성 싱글족의 증가는 안전에 취약한 사회구조의 개선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 보안과 안전을 모두 겸비한 주거환경 선호
 - 전국의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는 54.5%, 남성 1인 가구는 45.5%로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도 약 9.0%p 높음-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3) [문화] 나홀로 라운징(Lounging) 문화의 출현

-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문화향유의 방식을 개인화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취미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라운징(Lounging) 문화의 출현
 - 대한상공회의소(2013)의 1인 가구의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으로 여행 41.6%, 자기계발 36.0%, 레저 32.8% 등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여가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
- 1인 가구의 높은 정서적 고립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동호회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여가문화활동의 새로운 전환을 추동
 - 1인 가구의 증가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SNS, 취미활동 동호회 중심으로 사교활동을 중심하는 여가 문화 트렌드의 변화-1인 가구의 여가문화수요에 대응한 신여가문화정책 개발 필요(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1인 가구 여가문화콘텐츠 활성화)
- 최근 문화여가 활동에 있어 1인 가구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 문화산업분야에서도 1인 가구에게 맞는 새로운 문화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80.5%로 전체 가구 소비성향 73.6%를 능가, 특히 1인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함께 오락 및 문화활동분야로 자신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 성향을 보임

〈그림-1〉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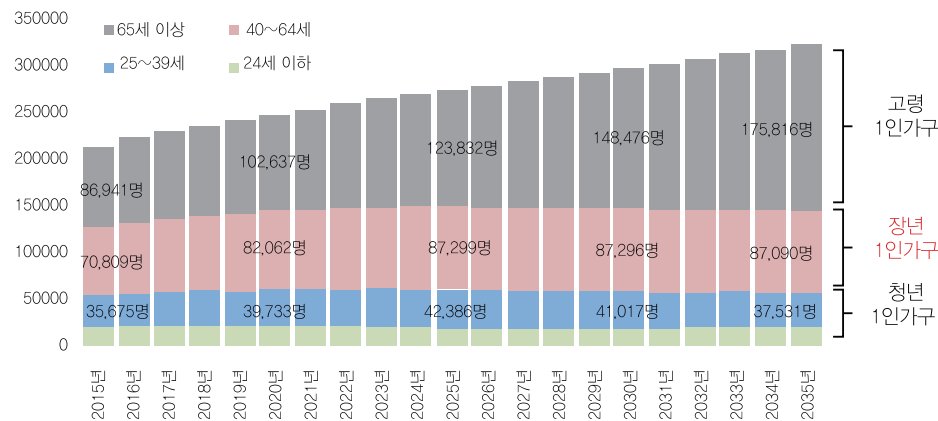
자료 : 최경은·윤주(2013). 1인 가구 여가활동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2. 전라북도 1인 가구 현황과 특성

1) 1인가구 현황 및 추이

-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를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같은 1인 가구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청년세대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결혼 지연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2015년 506만명에서 2020년 587만명, 2025년 656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70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015년 전체 가구의 30.44%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3.55%, 2030년에는 37.7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전국 평균인 27.05%보다도 약 3%p 높고 2030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4%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
- 1인 가구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청년 1인 가구와 장년 1인 가구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노인 1인 가구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연령별 추이를 보면 2015년 기준 청년 1인 가구(25~39세)는 35,675가구에서 2030년 41,017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장년 1인 가구(40세~64세)도 같은 기간 70,809가구에서 87,296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2〉 전라북도 1인 가구 연령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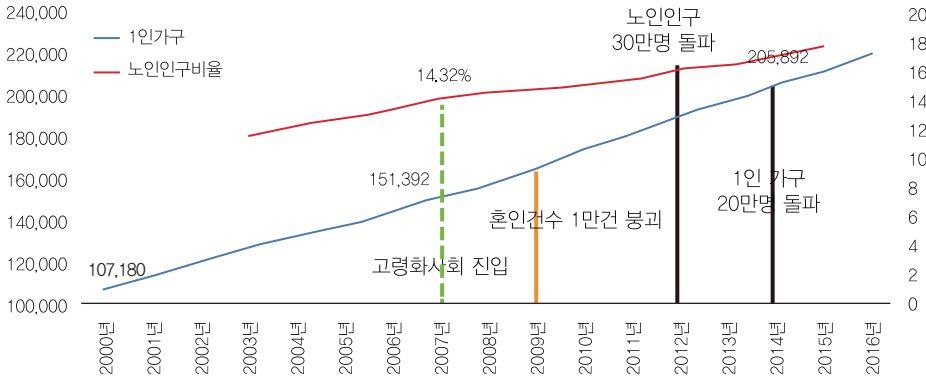
〈표-1〉 1인 가구 추계

구분	연령	2015년			2020년			2030년		
		전체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전체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전체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전국	19세이하	79,269	60,041	75.74	64,442	51,054	79.22	60,434	50,886	84.20
	20~24세	485,594	366,601	75.50	491,608	388,248	78.98	393,965	329,598	83.66
	25~29세	817,562	490,710	60.02	921,574	593,791	64.43	705,756	487,458	69.07
	30~34세	1,394,238	491,275	35.24	1,163,421	459,281	39.48	1,128,607	505,575	44.80
	35~39세	1,683,545	386,533	22.96	1,591,980	418,034	26.26	1,423,128	439,317	30.87
	40~44세	2,112,347	370,949	17.56	1,875,909	381,532	20.34	1,522,394	381,764	25.08
	45~49세	2,180,987	360,592	16.53	2,128,544	403,271	18.95	1,847,030	424,884	23.00
	50~54세	2,301,273	399,357	17.35	2,244,603	435,563	19.40	2,000,910	450,960	22.54
	55~59세	2,209,510	415,494	18.80	2,408,410	495,669	20.58	2,456,671	574,272	23.38
	60~64세	1,588,937	339,933	21.39	2,215,724	505,467	22.81	2,487,760	626,321	25.18
	65세이상	3,851,742	1,379,066	35.80	4,772,184	1,744,830	36.56	7,689,934	2,820,212	36.67
전체	18,705,004	5,060,551	27.05	19,878,399	5,876,740	29.56	21,716,589	7,091,247	32.65	
전북	19세이하	4,107	3,137	76.38	3,326	2,670	80.28	3,058	2,620	85.68
	20~24세	20,762	16,520	79.57	21,785	18,252	83.78	17,038	15,181	89.10
	25~29세	23,670	13,733	58.02	27,891	17,775	63.73	22,391	15,678	70.02
	30~34세	37,455	11,857	31.66	31,227	11,305	36.20	32,272	13,746	42.59
	35~39세	50,593	10,085	19.93	45,905	10,653	23.21	40,891	11,593	28.35
	40~44세	68,301	10,946	16.03	58,503	10,854	18.55	44,685	10,229	22.89
	45~49세	72,359	12,565	17.36	69,914	13,913	19.90	56,240	13,534	24.06
	50~54세	77,269	15,675	20.29	74,778	17,100	22.87	63,850	17,057	26.71
	55~59세	77,340	16,771	21.68	82,437	19,577	23.75	82,090	22,115	26.94
	60~64세	62,358	14,852	23.82	82,107	20,618	25.11	89,378	24,361	27.26
	65세이상	205,834	86,941	42.24	233,411	102,637	43.97	328,630	148,476	45.18
전체	700,048	213,082	30.44	731,284	245,354	33.55	780,523	294,590	37.74	

자료 : 통계청(2015) 인구동향

- 전라북도의 1인 가구의 증가추이와 경향을 분석해 보면, 전라북도의 1인 가구 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014년에 20만을 돌파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약 30만명을 돌파함

〈그림-3〉 전라북도 1인 가구 증가추이와 경향



- 특히, 전라북도의 장년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노인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약 두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증가는 사실상 60세 이상 고령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음

〈표-2〉 전라북도 1인 가구 증가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증감
19세이하	3,137	3,069	3,022	2,941	2,827	2,670	2,508	2,340	2,294	2,271	2,337	2,433	2,473	2,470	2,567	2,620	-16.48
20~24세	16,520	17,431	18,047	18,370	18,355	18,252	18,138	18,009	17,511	16,763	15,849	14,871	14,504	14,569	14,710	15,181	-8.11
25~29세	13,733	14,391	15,213	16,179	17,202	17,775	18,335	18,891	19,010	18,944	18,814	18,653	18,034	17,250	16,551	15,678	14.16
30~34세	11,857	11,509	11,159	10,941	10,914	11,305	11,681	12,049	12,663	13,283	13,762	14,065	14,168	14,120	13,953	13,746	15.93
35~39세	10,085	10,409	10,721	10,924	10,926	10,653	10,340	9,996	9,747	9,670	9,810	10,074	10,450	10,888	11,301	11,593	14.95
40~44세	10,946	10,873	10,756	10,612	10,580	10,854	11,116	11,375	11,558	11,526	11,257	10,869	10,480	10,208	10,108	10,229	-6.55
45~49세	12,565	13,026	13,489	13,873	14,059	13,913	13,738	13,530	13,272	13,163	13,329	13,627	13,911	14,051	13,930	13,534	7.71
50~54세	15,675	15,828	15,928	16,171	16,592	17,100	17,601	18,092	18,478	18,602	18,400	18,034	17,606	17,165	16,937	17,057	8.82
55~59세	16,771	17,728	18,540	19,129	19,491	19,577	19,648	19,702	19,887	20,292	20,786	21,323	21,882	22,297	22,394	22,115	31.86
60~64세	14,852	15,787	17,077	18,492	19,645	20,618	21,601	22,594	23,158	23,470	23,527	23,462	23,366	23,485	23,870	24,361	64.03
65세+	86,941	90,062	93,029	95,805	98,813	102,637	106,465	110,320	114,628	119,077	123,832	128,775	133,711	138,509	143,374	148,476	70.78
전체	213,082	220,113	226,981	233,437	239,404	245,354	251,171	256,898	262,206	267,061	271,703	276,186	280,585	285,012	289,685	294,590	38.25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증가추이를 보면, 향후 1인 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2015년 86,941 가구에서 2030년 148,476가구로 약 70.78%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1인 가구 중 초기노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60세에서 64세 1인 가구도 2015년 14,852가구에서 24,361가구로 약 64.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1인 가구의 증가폭은 크지만 청년 1인 가구는 증가폭이 노인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의 세대별 1인 가구의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40.8%수준이지만 2020년 41.83%로 급증하고 2030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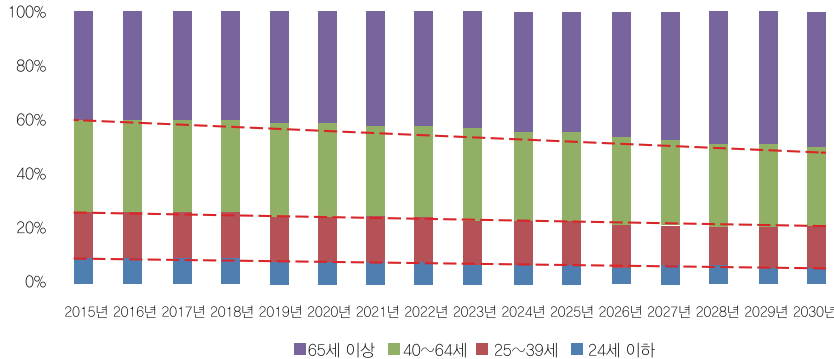
〈표-3〉 전라북도 세대별 1인 가구 증가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구]																
24세 이하	19,657	20,500	21,069	21,311	21,182	20,922	20,646	20,349	19,805	19,034	18,186	17,304	16,977	17,039	17,277	17,801
25~39세	35,675	36,309	37,093	38,044	39,042	39,733	40,356	40,936	41,420	41,897	42,386	42,792	42,652	42,258	41,805	41,017
40~64세	70,809	73,242	75,790	78,277	80,367	82,062	83,704	85,293	86,353	87,053	87,299	87,315	87,245	87,206	87,239	87,296
65세 이상	86,941	90,062	93,029	95,805	98,813	102,637	106,465	110,320	114,628	119,077	123,832	128,775	133,711	138,509	143,374	148,476
전체	213,082	220,113	226,981	233,437	239,404	245,354	251,171	256,898	262,206	267,061	271,703	276,186	280,585	285,012	289,695	294,590
[비율]																
24세 이하	9.23	9.31	9.28	9.13	8.85	8.53	8.22	7.92	7.55	7.13	6.69	6.27	6.05	5.98	5.96	6.04
25~39세	16.74	16.50	16.34	16.30	16.31	16.19	16.07	15.93	15.80	15.69	15.60	15.49	15.20	14.83	14.43	13.92
40~64세	33.23	33.27	33.39	33.53	33.57	33.45	33.33	33.20	32.93	32.60	32.13	31.61	31.09	30.60	30.11	29.63
65세 이상	40.80	40.92	40.99	41.04	41.27	41.83	42.39	42.94	43.72	44.59	45.58	46.63	47.65	48.60	49.49	50.4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통계청(2015) 인구동향 재구성

-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 1인 가구는 2015년 49.97%에서 2020년 49.64%로 감소하고 2030년에는 43.55%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청장년 1인 가구의 감소추이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2015년 16.74%에서 2030년 13.92%로 감소하고 장년 1인 가구가 같은 기간 33.23%에서 29.6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구성형태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전북보다는 높지만 전북은 노인 1인 가구가 전국 평균 노인 1인 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남
 - 전국 노인 1인 가구는 평균 27.58%수준이지만 전북은 40.92%로 전북이 17.34%p높은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전북이 16.50%로 전국 평균인 26.52%보다도 10.02%p낮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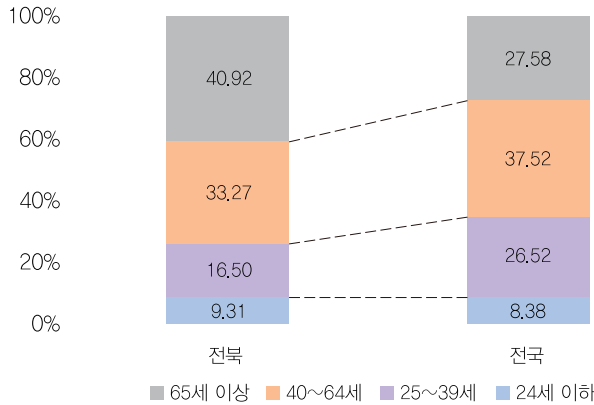
〈그림-4〉 전라북도 세대별 1인 가구 구성비



2) 전라북도 1인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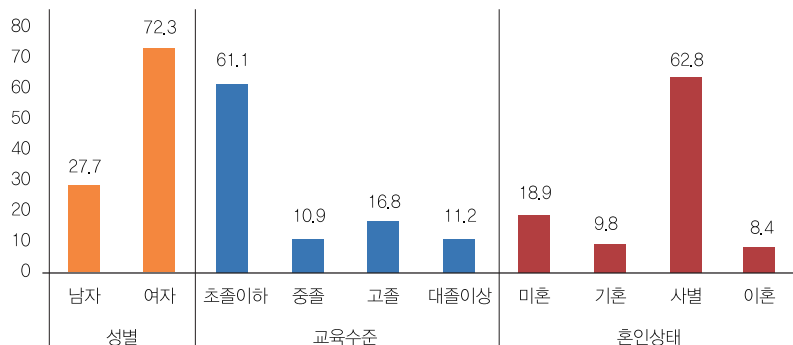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노인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25세에서 39세의 청장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1인 가구 대책과는 차별화된 대안 마련 필요함
- 특히 노인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 1인 가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라북도는 경제적 빈곤계층인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함
 - 노인 1인 가구는 소득이 낮은 초졸 이하의 저학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그림-5〉 전국-전북 1인 가구 구성비 비교



- 전라북도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 초졸이하의 학력 그리고 혼인상태에서는 사별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1인 가구의 성비는 남자 27.7%, 여자 72.3%로 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수준에서는 초졸이하의 학력이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이 62.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한편, 전라북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7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소득수준이 비 1인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1인 가구만 별도로 분석할 경우 1인 가구 중 15~24세의 청년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이 81.8%이고,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91.7%가 100만원 미만

〈그림-6〉 전라북도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전라북도 1인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계층은 연령대로는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 1인 가구, 지역별로는 농촌 1인 가구가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높은 비율 차지
 -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대부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데 반해, 2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표-4〉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전체 가구	1인	72.6	16.5	4.9	3.5	.7	1.1	.7
	2인	37.2	32.7	14.7	5.7	4.5	2.2	3.0
	3인	10.3	26.5	19.7	16.1	13.2	3.4	10.8
	4인 이상	1.9	15.5	23.6	22.8	18.5	5.6	12.1
1인 가구	연령							
	15~24세	81.8	18.2					
	25~39세	10.0	55.0	25.0	10.0			
	40~64세	44.0	30.7	12.0	5.3	1.3	4.0	2.7
성별	남자	48.1	27.8	13.9	6.3		2.5	1.3
	여자	82.0	12.1	1.5	2.4	1.0	.5	.5
지역	도시	56.8	25.6	9.6	4.8	.8	2.4	
	농촌	85.0	9.4	1.3	2.5	.6		1.3
전체	n	207	47	14	10	2	3	2
	%	72.6	16.5	4.9	3.5	.7	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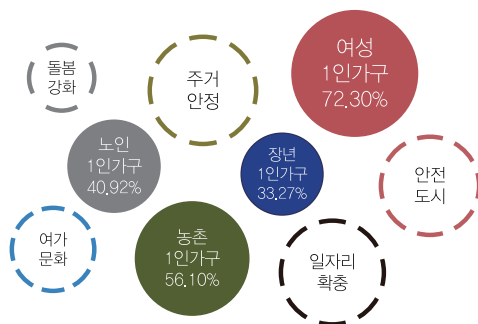
자료 : 사회조사(2014) Raw data 분석

3. 전라북도 1인가구 증가 대응 방향 및 분야별 대책

1) 전라북도 1인가구 증가 정책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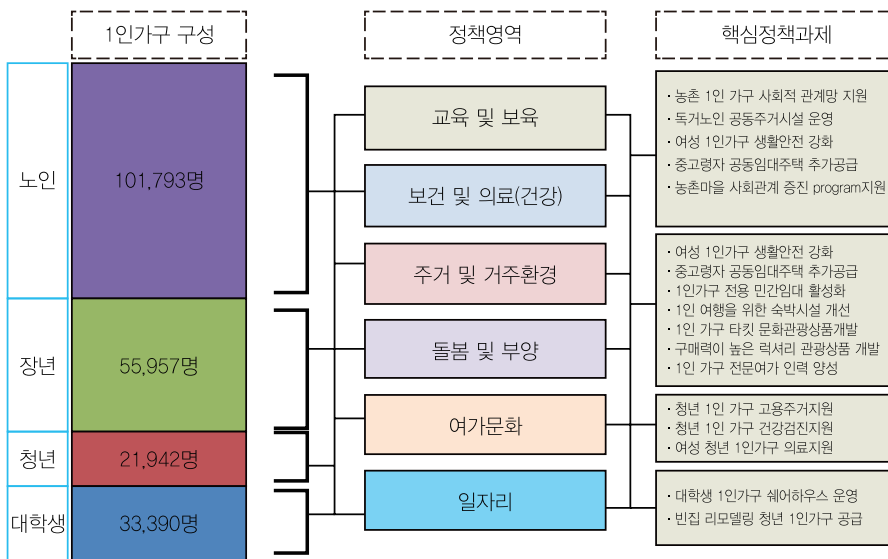
- 전라북도 1인 가구는 전국의 1인 가구의 경향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전국의 1인 가구는 안정적 소득기반을 가진 40대와 60대 미만의 중년의 남성과 25~39세의 청장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인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
 - 물론 전라북도도 40대에서 50대 미만의 장년 1인 가구의 비율이 33.27%에 이른다는 점에서 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 전라북도 1인 가구는 연령별로는 노인, 지역별로는 농촌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 1인 가구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대책 필요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청년 1인 가구의 일자리 그리고 장년 1인 가구의 여가문화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초점화 필요

〈그림-7〉 전라북도 1인 가구 특성과 정책수요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대응방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연령대로는 노인과 장년,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지역별로는 농촌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대책 강구
- 1인 가구 대책은 교육과 보육, 보건과 의료, 주거와 거주환경 개선, 여가문화와 일자리 등 현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세부적인 정책방향 제시
- 전라북도의 1인 가구 분야별 대책은 노인 1인 가구의 주거와 돌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고용지원, 그리고 장년 1인 가구의 여가문화 중심으로 사업의 전환 필요
 - 전라북도의 1인 가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1인 가구는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중심의 대안 마련, 장년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활용한 1인 가구 맞춤형 여가 문화산업으로의 전환과 소형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성비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는 위험사회에 대응한 지역안전체계 구축과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정책대안 강구 필요

(그림-8) 전라북도 1인 가구 증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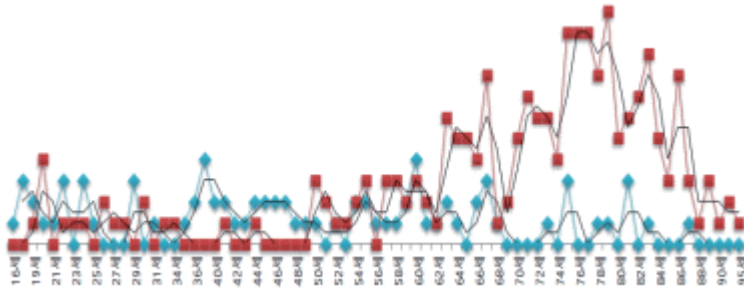
2) 전라북도 1인 가구 증가 정책 대응 방향

□ 안전 및 안심 돌봄 정책 강화

1) 현황 및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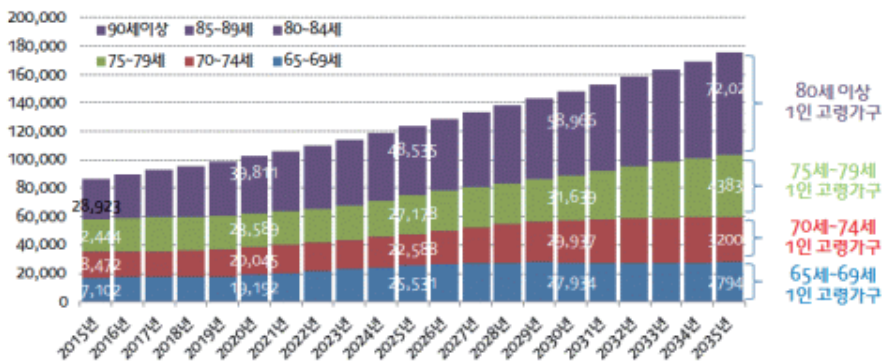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여성 1인 가구는 72.3%로 남성 1인 가구 27.7%보다도 약 세배 정도 높은 비율 차지
 - 전라북도의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여성 1인 가구 비율인 59.2%보다도 13.1%p 높은 수준
- 전라북도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보다도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전라북도의 여성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는 73.3%로 상당수의 여성 1인 가구는 고령 노인이 차지하고 있고, 남성 1인 가구는 40세와 64세의 장년 1인 가구가 45.6%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그림-9〉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1인 가구 추이



- 전라북도 여성 1인 가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1.9%로 남성 1인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인 64.1%보다도 22.2%p 낮고 여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8.0%로 나타나 여성 1인 가구는 낮은 경제활동참여와 저소득의 특징을 가짐
- 또한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보다도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고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불안 해소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
 - 여성 1인 가구의 68.3%(남성 1인 가구 51.3%)는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여성 1인 가구의 50.5%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사회조사 2014)
 - 여성 1인 가구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재(26.2%) 다음으로 범죄발생(20.1%)을 꼽고 있어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불안요소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 여성 1인 가구의 상당수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전라북도의 노인 1인 가구는 2015년 약 86,941가구에서 2035년 175,816가구로 102.2%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특히, 전라북도 노인 1인 가구는 65세에서 75세까지의 초기 노인보다는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져 노인 1인 가구의 돌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
 - 전북의 노인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75세~79세 노인이 22,444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세~74세 18,472가구, 80세~84세 가구 18,125가구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그림-10〉 노인 1인 가구의 연령특성 및 추이



- 전라북도 노인 1인 가구의 상당수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보면 농촌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농촌지역 1인 가구의 특징을 도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고령자가 많고, 여성노인이 다수를 이루며, 농사를 지으며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농촌지역 1인 가구는 독거노인이 대부분으로 이들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질환 등 건강관리를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로 대응방향 마련 필요

〈표-6〉 도시-농촌 1인 가구의 특징

구분	연령	성	혼인상태	직업	소득	사회적 어려움
농촌 1인 가구	고령자 중심	여성노인 중심	사별 노인	농업중심 (자영업)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건강, 소득, 고독
도시 1인 가구	중장년 중심	여성노인 많음	미혼 청년	서비스업 중심 (임금근로)	200~300만원 다수	소득, 가정불화, 고독

- 한편, 전라북도의 청년 1인 가구(16세 이상 30세 미만)도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청년가구의 상당수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대응정책 마련
- 전라북도의 청년 1인 가구는 33,390명으로 추정되고 전체 청년 가구의 68.7% 차지
- 전라북도의 청년 1인 가구는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대부분 보증금 월세에 생활하고 있어 안정적 주거환경대책 마련
- 청년 가구는 3가구 중 2가구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전라북도 청년 1인 가구(15세~24세)의 63.6%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점유형태로는 보증금 월세 생활자가 81.8%로 절대 다수 차지

2) 정책 방향 및 과제

-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안전·일자리·건강·사회적 관계 등 다층적 지원체계 필요하며 1인 가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인과 1인 가구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청년층에 따른 복지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 상당수 1인 가구는 저소득 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예방적 조치 강화
- 농촌지역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이 뒤쳐지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시정하는 방향에서 대책 마련

- ① 여성 1인 가구 지역방범서비스 제공(여성안전마을 지정·관리)
- 전라북도, 경찰서, 지역방범대와 연계하여 여성안전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보안업체 등과 연계하여 긴급 보안 및 출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여성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여성안전마을로 지정하여 사각지대 보조거울, 안전벽화조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등을 통한 안전주거환경 조성과 민관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지역방범서비스 제공
-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여성 1인 가구에 무선 보안시스템 설치 및 긴급지원서비스 제공(1차적으로 저소득 빈곤여성 1인 가구 지원)

[타지역 여성안전마을 운영 사례]

- 여성안전마을은 주민 스스로 여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위험환경 개선, 주기적 순찰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마을별로 8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 안전마을 14곳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2014년도에 5곳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25개 자치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도 여성안전마을을 조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방범초소 설치, 무인안심택배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서울시, 2013)



- ② 청년 1인 가구 식사쿠폰 및 건강검진비 지원(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 지원근거 마련)
 - 청년 1인 가구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낮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 검토 필요
 - 청년 1인 가구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식사쿠폰 제공
 - 청년 1인 가구의 의료, 교육훈련, 식사지원 등 종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서울, 경기도 사례 검토)
- ③ 노인 1인 가구의 방문형 안심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 1인 가구의 지원체계를 기관이용자형에서 복지기관 방문형 복지로 전환하여 노인 1인 가구의 방문형 안심서비스 제공
 - 노인 1인 가구의 건강 및 주거상태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의 복지기관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 방문형 안심돌봄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 지역의 노인복지관 혹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정하여 관련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안심돌봄종합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1인 가구의 복지욕구인 식사, 미용, 치매상담, 건강검진,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기관(노인복지관)을 지정하여 관련 지역기관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방문형으로 제공함. 노인 1인 가구는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워 기관이 가정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로 전환해야 함 	
--	--

- ④ 시니어-주니어 세대공감 홈쉐어링 조성
 - 노인 1인 가구의 유휴 주거공간을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에게는 주거비부담완화, 노인에게는 외로움과 고독감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시니어가구의 고독감 완화와 1인 주니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청년 홈쉐어링 사업은 유럽(스페인,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1인 고령가구 중 주거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택을 선택하여 세대주거가 가능하도록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1인 가구에게 임대하고 한가구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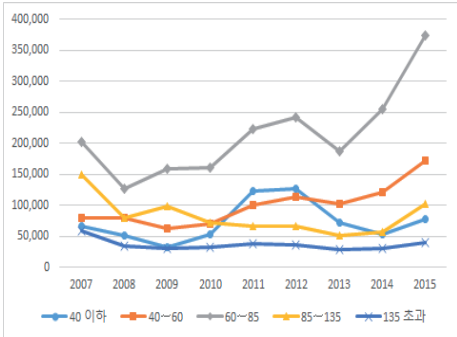
□ 소형·임대 중심 주거정책 전환

1) 현황 및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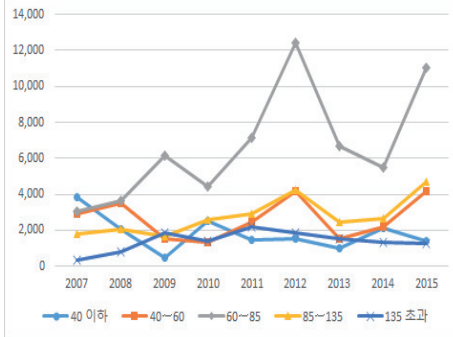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소형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6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 전북의 주택규모별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에 대형주택은 0.09%, 중형주택은 0.20%, 소형주택은 0.21%로 소형주택의 가격 증가가 더 높음
- 지난해 동월 대비 가격 변화를 보더라도 대형은 0.98%, 중형은 0.92%, 소형은 1.92%로 소형주택의 가격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11〉 주택규모(㎡)별 건설실적(인허가)_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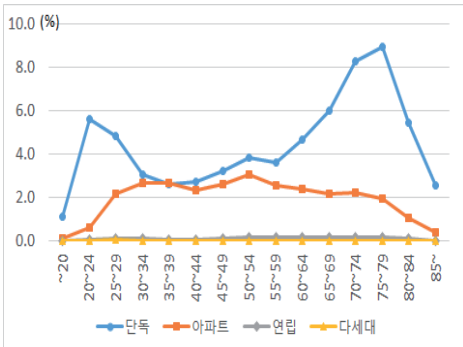


〈그림-12〉 주택규모(㎡)별 건설실적(인허가)_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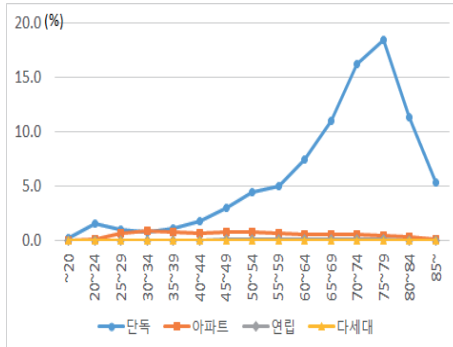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주거형태도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1인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20~30대 젊은층 1인 가구는 임대주택, 특히 보증부 월세가 높은 비율 차지
 - 젊은층은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지역에서의 주택수요가 높을 것이고, 대부분 경제적 여건상 임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의 지역별 주거형태에도 1인 가구의 세대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의 1인 가구 주거정책도 차별성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전라북도 농촌지역은 고령층에서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고령층과 더불어 20대의 청년층에서도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음
 - 농촌지역의 고령층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청년층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의 거주 경향을 추측할 수 있음

〈그림-13〉 도시지역 연령별 거주 주택 비율(2010)



〈그림-14〉 농촌지역 연령별 거주 주택 비율(2010)



2) 정책 방향 및 과제


- ① 저렴한 소형주택 공간공유형 셰어하우스
 - 젊은층의 주거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의 독자적 주거보다는 공동공간은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공급
 -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들을 위해 독립공간인 침실은 개별적으로 가지지만 거실, 부엌, 세탁실 등 공동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춤

- 1인 가구의 폐쇄적 생활보다는 주거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들이 공동공간에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한 사회활동과 상호 공감의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함

<p>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셰어하우스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낡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청년층에 공급 • 서울시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자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민간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저렴하게 공급 	<table border="1"> <tr> <th data-bbox="603 331 821 384">BEFORE</th> <th data-bbox="821 331 1050 384">AFTER</th> </tr> <tr> <td data-bbox="603 384 821 658">  </td> <td data-bbox="821 384 1050 658">  </td> </tr> </table>	BEFORE	AFTER		
BEFORE	AFTER				
					

② 농촌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그룹홈 확대운영

-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일상적 주거생활을 공동으로 해결
 -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 등 다양한 일상 주거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상호 도와줌으로써 원활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게 함
-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공동생활하면서 친교활동을 통한 정신적 건강 제고
 - 비슷한 상황의 다른 노인들과 대화와 친교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독거노인의 홀로 거주에 따른 고독감을 해소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 삶의 활력 제고가 가능해짐

<p>김제시 '한울타리행복의 집' 그룹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경로당의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여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야간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주거생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함 	
---	---

③ 청년 1인 가구 주거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대학가나 도심에 행복주택 등의 소형주택의 공급을 유도하여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도록 함

<p>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형(준)공공임대주택을 민관이 협력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주거문제 해결 시도 	
--	--

④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1인 가구 공동체·동호회주택으로 활용

- 관심사항이 같은 1인 가구의 주거와 동호회활동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공동체주택 또는 동호회주택으로 공급

- 전북 도내 44,526호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고, 전체 빈집의 60.0%가 1인 가구 수요의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재고로서 가치를 가짐
- 다양한 여가와 예술창작 활동 육구의 증가에 따라 관심사항 공유 수요에 대응한 공동체 또는 동호회주택 공급 필요
- 창업을 꿈꾸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빈집 리모델링 공동체주택 공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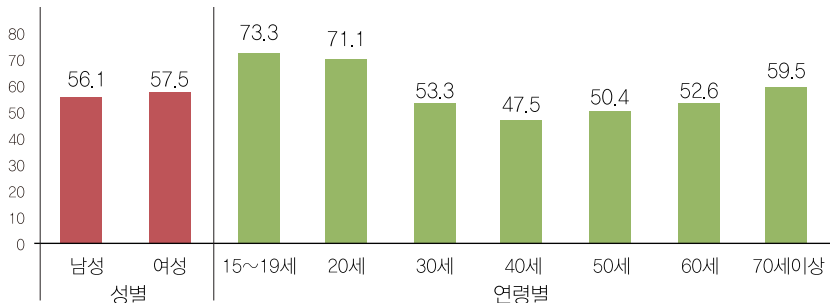
□ 1인 가구 맞춤형 문화관광상품 개발

1) 현황 및 동향

- 소비성향을 가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식주 소비행태를 비롯해 여행, 문화생활 등 여가 생활 패턴도 크게 변화(산업연구원, 2015)
 - 2014년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80.5%로 전체 가구인 73.6%보다 6.9%p 높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14)
 - 이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대부분인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을 잘 대변해 주고 있음
- 문화분야에서는 '나홀로 리안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트렌드의 영향으로 인해 나홀로 여행 문화 확산
 -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여가 활동을 '혼자서' 즐기는 사람이 56.8%로 절반 상회(2007년 44.1%에서 12.7%p 증가)
 - 연령별로는 15~19세와 20대 경우 70% 이상이 혼자서 여가를 즐기고 있으며, 30대에서 70세 이상에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15〉 1인 가구의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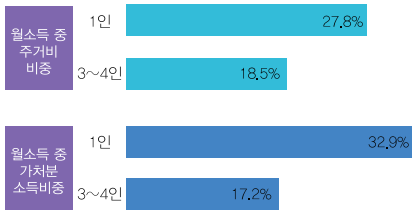
(사례수=10,03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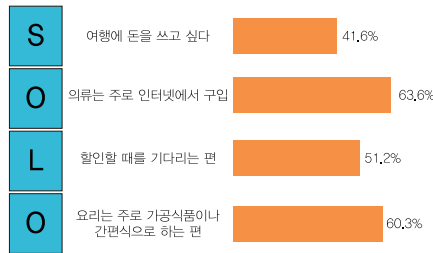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1인 가구의 개인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소비활동 증가로 인해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
 -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월가처분 소득이 전체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인 가구가 32.9%로 3~4인 가구의 17.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의 월가처분 소득도 80만 5천원으로 3~4인 가구의 73만 5천원보다 높게 나타남(대한상공회의소, 2013)
- 대한상공회의소는 1인 가구들의 소비행동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소비 키워드를 'S.O.L.O'족, 자기지향(Self), 온라인지향(Online), 저가지향(Low Price), 편리성지향(One-stop)으로 규정함
 - 1인 가구가 향후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항목으로 여행(41.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자기개발(36.0%), 레저·여가(32.8%), 건강(32.0%), 취미(26.0%) 순으로 나타남

〈그림-16〉 1인 가구 및 3~4인 가구의 소비여력 비교



〈그림-17〉 1인 가구 소비키워드 : S,O,L,O



2) 정책방향 및 과제

- 1인 가구가 새로운 여가 소비주체로서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시장에서의 영향력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1인 가구 여가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가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등 여가분야의 소비를 진작시킬 방안 모색 필요함
-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행정 및 민간영역에서의 연령별 라이프스타일 분석과 소비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함

① 혼족문화 대응형 관광인프라 정비

- 전북도내 도심권 및 관광지 주변 1인 여행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개선
 - 현재 전북도내 대부분 숙박시설은 2인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1인 여행객의 경우 숙박비 부담이 가중됨. 1인 숙박이 가능하고 부담이 적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 필요
- 1인 식당 손님맞이 캠페인, 메뉴 개발, 시설 정비를 통해 전북여행의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내 관광지 주변 식당의 경우 메뉴에 2인 이상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의 소비패턴에 맞춰 여가문화 인프라 정비 및 홍보강화

② 토탈관광 연계 1인 여행객 지원

- 토탈관광 연계 1인 여행객의 신규 관광 수요 확대 및 관광소비 창출을 위해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체계 협력
 - 토탈관광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북투어패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패스권 한 장으로 전북 곳곳의 특별할인 가맹점 500곳(2016.6)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이러한 '전북투어패스'는 단체여행객 보다 1인 여행객 관광 수요에 부합되는 정책이므로 특별할인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제공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1인 여행 어플 개발을 통해 전북관광 잠재 수요 대응 필요
 - 1인 여행객은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여가생활 및 레저 활동 등 기초 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토탈 관광과 연계한 1인 가구 여행어플 제작을 통해 1인 가구 적합 여행코스, 음식점 등 정보제공

③ 1인 여행객 타킷 맞춤형 문화 관광 패키지 및 럭셔리 관광상품 개발

- 1인 가구의 활발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공연분야에서는 1인 티켓 할인 및 이베트 차원의 1인 좌석 마련, 맞춤형 간식 메뉴 출시, 1인 관객을 위한 좌석 보편화 등 관람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중 구매력이 높은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등 구매력이 큰 소득 1인 가구를 타킷으로 하는 골프, 스키, 예술, 공연, 와인 등 고급문화를 접목한 럭셔리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
 - 국내에서는 부산관광공사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삼주다이아몬드베이와 손잡고 골프+요트+숙박이 결합된 고급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장점을 활용한 문화와 레저를 결합한 특수목적관광(ST) 테마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신규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함

- 여행분야에서는 1인 여행객을 겨냥, 개인 일정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도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는 여행 상품을 출시함.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2015년에 혼자 항공권을 예약한 인원이 전년보다 21%증가했으며, 전체 여행객 중 1인 여행자 비율은 36%를 차지함.
- 일본의 클럽투어리즘인터내셔널 경우 '1인 여행'에 이어 단체여행 형태로 가격을 낮춘 '나홀로 참가하는 단체여행'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임



■ 참고문헌

- 김종숙(2014). 세대별, 성별 1인가구의 현황과 고용_복지정책.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13) 1인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장미혜(2015). 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협대응역량 강화방안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울시(2015). 서울시 여성안전마을 전 자치구 확대
- 최경은·윤주(2013). 1인 가구의 여가활동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통계청(2015) 인구동향
- 통계청(2014)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 통계청. 성, 연령별 및 거주지 종류별 1인 가구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 솔로 이코노미의 성장과 금융산업.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